

석유산업의 방향과 산유국의 꿈



곽 영 훈

〈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

유가가 급등하며 경제활동에 주름살을 주고 있어 걱정이다. 석유가 없는 현재의 문명은 상상할 수 없고 아직도 이를 대체할만한 획기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에서 석유는 현대 문명의 아킬레스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조정하는 OPEC제국은 국력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대륙붕에서 소량이나마 가스층이 발견된 바 있어 우리도 조속히 석유를 생산해서 파동적인 위치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온지도 1세기가 넘었고 유공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석유산업이 시작된지도 거의 40년이 되며 하류부문을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의 외형은 엄청나게 커져서, 정유능력은 2,438천 B/D로 내수를 초과할 정도이다. 그러나 IMF 때문이지만 구조조정을 겪으며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석유산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결국 이제는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의미보다는 누구의 경쟁력이 더 높은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새로운 시장 여건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하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과거와 앞으로의 변화

우리나라에 석유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880년도로 추정되며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제품을 수입한 것이 효시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 산업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도에 30만톤 규모의 조선석유가 설립된 이후이다. 본격적인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첫장은 1962년도에 건설에 들어가 1963년도에 준공된 유공의 일 35천 바렐 규모의 정유공장이라 하겠다. 이후 호유를 비롯해 경인, 쌍용, 극동, 현대 등 정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 되어 이제는 내수 수준을 넘어서 과잉 중복투자를 걱정하는 상태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100%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외 신인도의 하락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의 변경으로 결제외화가 부족해지며 정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던 석유산업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육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외국인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기업간 M&A도 허용하여 완전 경쟁체제로 돌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이미 선진국 경제에서는 전연 새로운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아직도 낯이 설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업환경은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틀림없는 만큼 상대보다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곧 뒤쳐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관계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좋던 싫던 이미 밀접하게 국제사회와 연관을 맺고 움직이고 있으며 석유산업 역시 완전 경쟁체제 하에서 국제 대자본에 맞서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시장만을 바라보면 안되고 최소한 인근지역을 시장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석유산업은 채유에서 정제를 거쳐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단계에 걸친 산업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생산 이전인 상류부문은 매우 취약하고 정제를 중심으로 한 하류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하류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은 원료인 원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의 유가 상승도 산유국의 감산조치 효과 때문인 것만 보더라도 원유의 안정 공급체계가 없는 하류부문은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현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라도 상류부문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다 하겠다. 비록 상류부문이 투자 위험도가 높고 유가 변화에 수익이 민감하게 변하는 등 투자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위험만큼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고 한부문의 최종 산품은 다음 단계의 원료로 활용된다는 석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부문에 대한 고른 발전만이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국제 원유 공급환경

세계 소비량 기준 40년분에 해당하는 석유가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고 아직은 지속적인 탐사활동의 결과 이러한 가채년수의 변화가 없어 가까운 장래에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석유의 중동지역 부존 편재성이 65%나 되기 때문에 항상 공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동안 OPEC에 억제 역할을 하던 북해 유전의 경우 매장량의 한계에 곧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OPEC의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시아만을 놓고 볼 때도 현재 중동지역산 석유에 대

한 의존도가 80%선을 넘었지만 동서문화센터는 2010년에 9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과 같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해외의존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안한 공급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유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 및 기술력의 뒷받침이 요구되는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공급선의 다변화와 도입방식의 다양화로 편재성을 완화시키며, 지분참여를 통한 확보물량 증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몇 년동안 석유시장은 심각한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기를 번갈아 가며 맞아 왔고, 이러한 외중에 기업들 간에 지구 노력의 일환으로 M&A가 세계적인 대규모 회사들은 물론 중소 규모 회사에 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는 상류부문의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갈수록 석유시장에의 신규 투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상류부문에의 진출은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3. 국내 석유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석유 대소비국이고 4위의 수입국일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오는 2004년까지의 국내 총 1차 에너지는 연평균 5.4%의 비율로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도 거의 비슷한 비율인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석유가 일차 에너지원에서 점하는 비중은 여전히 50%를 상회해 주종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것이 확실하다. 비록 석유의 점유율은 1999년도의 약 53% 수준에서 2004년에는 51.1%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장기적으로는 타 에너지원으로서의 전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대물량 측면에서는 현재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해 수입대금이 2004년에는 바렐당 25달러만 잡아도 228억달러로 1999년보다 51억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바뀌지 않는 것은 산업 원료 측면도 있지만 급속히

증가되는 수송 에너지가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석유의 안정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의 정책을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공급 가능성을 알기 위해 대륙봉을 대상으로 탐사사업을 진행시키는 일방 해외 유전에 대한 개발수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방식과 도입국의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사업도 진행시키고, 유가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가격정책을 여건 변화에 맞춰 실시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시책을 행해 왔다. 그러나 안정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해외 유전개발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막대한 자금수요와 높은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민간이 추진토록 유도함에 따라 20년 동안 추진했지만 아직도 정부가 목표로 한 개발수입분 10%라는 수치에 훨씬 못미치는 1.8%라는 저조한 성적에 머물고 있고, 가격 안정기에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중동산으로 구입선을 돌려 수입선 다변화도 의도대로 되지 않은 실정이다.

4. 앞으로의 할 일

우리나라가 1984년 이후 16년간 국내 대륙봉 석유탐사에 투자한 총금액은 대략 2억달러 수준으로 1999년도 한 해 석유 수입액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에서의 탐사사업은 자체 기술 역량의 배양을 위해서도 중요성을 가지나 그동안의 탐사에 대해서는 너무 투자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술배양을 위한 토대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며, 새로운 구조 탐사(wild cat) 방식의 접근에 너무 의존하여 온 바도 없지 않아 탐사 기간에 비해서는 아직도 정보축적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해외개발의 경우 98년말까지 탐사사업 74개, 개발·생산사업 18개에 모두 26억불 정도를 투자해 그중 69.3%를 회수했지만 정부지원금의 경우는 매우 저조하여 상업적인 성공률은 약 4.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대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민간기업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정도까지는 석유개발사업

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술력의 확보와 낮은 민간의 인식 수준을 높이며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류부문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상호 연계성이 결손된 체제로서는 석유산업 자체의 투자 효율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부문간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술력의 확보는 인력양성 못지 않게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이는 노우하우(know-how)가 관건이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연구회에서 자국 수요의 1%에도 못미치는 적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자체 인력과 기술력 배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대륙봉에 대한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도 경제논리만을 앞세우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 많은 기술인력이 배출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한편 시장규모의 확대는 산업 규모의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만큼, 이제는 작은 내수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최소한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상정하고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묶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류부문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5. 맺으면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도 석유개발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으며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투자의 효율을 높이며 정책 목표를 달성해 국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류 부문에의 진출을 서두르고 시장확대를 위한 장기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석유산업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확보가 선결문제인 만큼 우선은 이 부문을 전담하는 공기업의 육성이 요청된다. 취약한 우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첩경은 손쉬운 실험장소인 국내 대륙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행해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길이 산유국의 꿈을 조속히 실현시키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